

백악관 “이란과 협상 계속…패배 불인정시 큰 타격”

“트럼프, 지옥 불러올 준비 돼있어” 경고 이란에 종전 합의 압박

‘이란 사실상 정권교체’ 입장 유지 “훨씬 더 후호적 인사 와야”

백악관은 27일(현지시간) 이란전 종식을 위해 이란과의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란이 군사적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하게 타격하겠다고 경고했다. 케를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라며 “현재로서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 오간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이란과 종전 협상

중이라며 이란이 핵무기 포기 등 주요 쟁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란 정권과 군부는 미국과 협상 중이 아니라고 부인한 상태다. 이후 미국이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이란 측에 15개 사항을 담은 종전 제안서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미국 언론에서 나왔으며, 이에 대해 이란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보도도 이란 언론에서 이어졌다. 그러나 레빗 대변인은 지난 27일 저녁 이란 측이 대화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해왔으며 생산

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레빗 대변인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15개 항목의 종전 제안에 대해 일부 맞는 내용도 있지만 잘못된 내용도 많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란 측 협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매우 민감한 외교적 논의사항”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미국과 이란 대표단의 대면 협상 가능성과 관련해서 “이번 주 후반에 열릴 수 있는 잠재적인 회담과 관련해 많은 추측과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백악관이 공식 발표할 때까지 어떤 내용도 공식적인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장대한 분노”(Epic Fury)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 작전의 핵심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근접해 있다”며 “우리 군사작전

은 날이 갈수록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이란의 상업용 선박 위협 능력을 꾸준히 약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28일 작전 개시 이후 9천 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하고 해군 함정 140척 이상을 파괴했으며,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 능력은 초기 대비 약 90%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란은 자신들이 무너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며 “바로 그래서 이란이 탈출구를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나 평화를 우선시한다. 더 이상의 죽음과 파괴는 필요하지 않다”면서도 “이란이 자신들이 군사적으로 패

배했으며 앞으로 계속 패배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어느 때보다 더 큰 타격을 입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허풍을 떠는 사람이 아니며 지옥을 불러올(unleash hell) 준비가 돼 있다”며 “이란은 다시는 오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레빗 대변인은 대이란 군사작전 과정에서 이란 수뇌부가 대거 사망한 상황을 사실상 정권 교체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 정권 지도부에 훨씬 더 후호적이고 협력 의지가 있으며 더 이상 ‘미국에 죽음을’이라고 외치지 않을 인물이 오길 바란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폭격맞은 레바논 건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적대 행위가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25일(현지시간) 레바논 나비티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된 현장에 잔해가 흩어져 있다. /REUTERS-연합뉴스

“이스라엘, 트럼프 ‘토요일 휴전 발표’ 가능성 촉각”

“휴전 발표 전 대이란 타격 극대화”

이스라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던 오는 토요일(28일) 대이란 휴전을 전격 선언할 수 있다고 보고 경계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스라엘 채널12 방송은 27일(현지시간)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국이 이란에 제안한 ‘전쟁 종결을 위한 15개 항’에 대한 최종 합의가 마무리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선언할 가능성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응해 이스라엘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선언 전에 이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기 위해 핵심 타격 목표물을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하는 등 지난 2시간 동안 작전 계획을 수립했다. 이스라엘 당국자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상세하고 포괄적인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여전히 낮지만, 일반적인 기본 틀 수준의 합의는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며 “이스라엘은 이에 대비한 모든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카츠 국방

부 장관, 예알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 다비드 바르니아 모사드 국장 등 군·정보기관 수뇌부를 소집해 긴급 대책 회의를 진행 중이라고 방송은 소개했다. 이스라엘 내각의 안보 관계 장관회의도 이날 밤 소집될 예정이다. 이번 주말은 마-이스라엘의 대이란 공동 작전이 시작된 지 4주째가 되는 시점이다. 애초 미국은 이번 대이란 군사작전 기간을 4~6주로 설정한 바 있다. 케를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저녁 브리핑에서 “작전이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매우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작전의 핵심 목표 달성에 매우 근접한 상태”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日 국가비축유도 방출 개시…자국 소비량 1개월분

일본 정부가 27일 자국 소비량의 한달 치 국가비축유 방출을 개시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민간 비축유 15일분 방출 개시에 이어 이날부터 국가비축유도 방출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국가비축유 방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발생한 2022년 이후 두번째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일본 내 석유 제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국제시장의 공급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앞서 다가키치 사나에 총리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비축유 방출 결정 전인 지난 11일 민간 비축유 15일분과 국가비축유 1개월분을 합쳐 역대 최대인 약 8천만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이달 22일 기준 일본의 비축유는 총 288일분으로, 유형별로는 국가비축유 146일분, 민간 비축유 88일분, 산유국 공동비축유 6일분이 있다. 산유국 공동비축유도 이달 중 5일분이 방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中 인기 직종 ‘AI훈련사’…“작년 상하이 1만명 취득”

“AI 기술·산업별 전문성 갖춘 인재 필요” 인공지능(AI)을 전락 산업으로 육성 중인 중국에서 AI 모델의 학습을 돕는 신종 직업인 ‘AI 훈련사’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관영매체가 27일 전했다. 중국 인민일보에 따르면 상하이시에선 지난해 1만6천300명이 AI 훈련사 직업 기능 등급 평가에 참여해 1만900명이 통과, 자격증을 취득했다. AI 훈련사는 AI 제품이 현실에 적용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는 신종 직업이다. 업무 내용을 보면 등장 초창기만 해도 간단한 데이터 주석 작업과 효과 평가 등으로 비교적 간단했지만, 이제는 버티컬 AI 모델(개별 산업에 특화된 AI) 전문 데이터 처리와 모델 매개변수(파라미터) 조정, 체화지능(embodied intelligence-물리 실체를 갖고 실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인공지능) 워크 플로우 설계로 확장됐다.

중권하오 상하이시 AI산업협회 비서장은 AI 훈련사에 사람들의 관심이 몰린 것을 두고 “산업 수요가 근본적인 원동력”이라고 설명했다. 인민일보는 상하이 지역에서 AI 훈련사 직위 채용 수요가 30% 넘게 증가했다고 했다. 상하이 AI 산업단지 모쭈공간(模速空间)에 입주해 있는 한 기업 책임자는 “우리는 특히 ‘기술+수직 업종(특정 산업 전문성)’의 배경을 가진 복합형 인재가 부족하다”며 “시장에서는 이 필요에 부합하는 인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채용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이 커지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 됐다”고 말했다. 중권하오 비서장은 “AI 기술 대체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교육 내용이 빠르게 업데이트돼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일부 산업 분야의 AI 훈련사는 일정한 전공 배경 지식을 갖춰야만 일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

광주 안의 유일한

천환경 수목장

☑ 아름다운 자연

☑ 365일 관리

☑ 가족구성 가능

☑ 사용기한 없음

☑ 전문 이장

☑ 광주시청 20분

수목장 · 묘지 이장 · 장례

상담: 062-449-4446